

전자랜드, 30일까지 '인하우스 프로모션'

전자랜드가 30일까지 '인하우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0인치 이상 TV와 안마의자를 동시 구매한 고객에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베이직 12개월 이용권을 증정한다. 또 밥솥,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을 전자랜드 삼성제휴카드 또는 스페셜 롯데카드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PB상품으로 실속 구매하세요"
홈플러스가 16일까지 '시그니처 워크'를 진행해 프리미엄 자체브랜드(PB) 시그니처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물티슈 및 베이비 물티슈, 1A 우유, 부드러운 화장지, 자이언트 바비큐 폭립, 진짜 스펀지 부대찌개 등이 대표 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비즈니스 트렌드 | 백화점업계 '언택트 마케팅' 가세

롯데 높은 백화점도 "음식배달 해 드려요"

현대백, '바로투홈' 서비스 도입
전문식당 즉석식품 1시간내 OK

압구정 갤러리아, 달리자와 협업
인근 아파트에 식품관 음식배달

백화점 업계가 식품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백화점 방문객 수가 줄어든 반면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트렌드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이 서울 무역센터점에 도입한 '바로투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반경 3km내 장소에 1시간 안에 백화점 전문식당과 델리 브랜드의 즉석 식품을 배달해준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배달료가 면제된다.

다수의 먹거리를 함배송하는 게 강점이다. 기존 각 음식점별로 배달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백화점 내 입점 매장 식품이면 수량에 상관없이 패키지로 함배송 가능하다. 송성현 현대백화점 온라인식품담당 상무는 "백화점 식품관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며 "백화점 기반의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극대화해 신규 고객을 창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선보인 '바로투홈' 서비스. 코로나19가 낳은 비대면 소비트렌드인 백화점 식품관 음식 배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은 1일 생활밀착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업체 달리자와 손잡고 식품관 고메이 494 매장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 '김집사블랙'을 선보였다. 반경 1.5km 내 아파트 거주 고객이 대상이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한다.

실시간마켓 정보기, 전문 인력 배치, 컨시어지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컨시어지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원과 실시간 1:1 채팅을 통해 고기 두께와 굽기 정도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 인근 약국 방문, 세탁물 픽업 등 심부름 요청도 가능하다. 전기 자전거를 배달해 친환경을 추구하고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을 줄였다.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 등의 포함 여부를 사전 파악해 포장물 낭비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후원금 배분 등 선수들 권익 보호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후원금·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지적·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

육성근 선수 표준계약서에는 성장 가능성이 낫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에그슬럿' 딜리버리 서비스 론칭



SPC그룹이 운영하는 에그슬럿(사진)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발맞춰 딜리버리 서비스를 론칭한다. 에그슬럿은 파인

다이닝 출신 셰프가 달걀과 최상급 식재료를 이용한 에그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파인캐주얼 브랜드로 7월 삼성동 코엑스에 국내 1호점을 선보였다.

'에그슬럿 딜리버리 서비스'는 SPC그룹의 통합 멤버십 '해피포인트'에서 운영하는 딜리버리앱 '해피오더'와 '쿠팡이츠'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배달 가능 지역은 에그슬럿 코엑스점 인근으로 해피오더는 반경 2Km(일부 지역 제외), 쿠팡이츠는 반경 3Km까지 가능하다.

또한 해피오더 앱에서 원하는 제품을 미리 주문·결제한 후 에그슬럿 매장 에서 대기없이 바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바로픽업 서비스'도 운영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호텔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인터컨티넨탈 '추석 차례음식 세트',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추석 햄퍼', 글래드 호텔의 '글래드 셰프's 에디션' (왼쪽부터). 사진제공 | 인터컨티넨탈·그랜드 하얏트·글래드 호텔



셰프가 만든 차례상·레스토랑 HMR까지...막오른 호텔 추석선물 경쟁

올해도 호텔들의 추석 선물세트 경쟁이 막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올해는 더욱 추석선물에 거는 호텔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가치소비와 홈쿠팡 등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품목들이 눈길을 끈다.

●호텔 셰프의 차례음식 어메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셰프 특선 차례상'은 국내산 최상급 재료를 이용한 프리미엄 차례음식이다. 한식 전문 셰프가 탕국부터 도미전까지 9가지 차례음식을 준비했다. 48시간 전 예약 필수이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호텔 직원이 직접 배송한다. JW 메리어트 동대문도 테이크아웃 상품 'JW 명절 투고'를 운영한다. 사색 모듈전부터 접산작, 갈

비빔 등 8가지의 메뉴로 구성했다.

●호텔 셰프 레시피로 홈쿠팡을

웨스턴진호 호텔은 양식당 나인스케이프의 스테이크나 로스트 비프를 집에서 맛보도록 정육, 셰프 레시피, 프랑스 계량 드 소금, 디종 머스터드, 각종 허브로 이루어진 가정간편식(HMR) 선물세트를 론칭했다. 뷔페 아리아의 인기 메뉴인 양갈비 스테이크도 레시피가 포함된 HMR로 판매한다.

대림그룹 계열의 글래드 호텔엔리조트도 '글래드 셰프's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HMR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그리츠 시그니처 양갈비 세트부터 블랙앵거스 LA갈비, 청정 삼겹살육구이 등 다양하다. 워커히 호텔엔리조트는 호텔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의 갈비탕, 한식당 '온달'의 육개장을 HMR 선물세트로 출시했다.

●보다 더 럭셔리하게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호텔 전문가가 선정한 5종의 '추석 햄퍼'를 판매한다. '삼페인 햄퍼'의 경우 로랑페리에 로제 샴페인과 3대 진미로 꼽히는 캐비어와 푸와그라, 그린 올리브, 브리 치즈, 구운 아몬드 등으로 구성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이탈리아 트러플의 장인이 선정한 최고급 블랙 트러플을 전용 슬라이서와 함께 세트 구성했다. 또한 샤토 라피트 로질드, 샤토 마고, 샤토 라투르, 샤토 오존, 샤토 슈발블랑 등 프랑스 그랑크뤼 1등급 와인 선물세트도 있다.

호텔의 시그니처 베딩 세트도 선물로 나왔다. 웨스턴진호 호텔은 60수 면 100%인 '바로크 침구 세트'와 프리미엄 100수 면 100%의 '에블린 침구 세트'를 추석선물로 내놓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에듀윌

심리 상담실 '마음, 씬' 운영



직장 스트레스 원인 "인간관계 25.2%"

최근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조사 결과 직장인의 86.7%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드러낸 것은 25.2%가 인간관계였다. 근소한 차이로 과도한 업무량이 23.7%를 기록했으며, 낮은 연봉이 13.%,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이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원인은 5.6%로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로 나타났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은 예민해진 성격,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잡자기, 술, 담배, 친구와의 대화, 운동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업무 스트레스 또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실 '마음, 씬'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 씬'은 상담심리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기업체 등지에서 풍부한 심리상담 경험을 쌓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상주해있다.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고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임직원 1:1 맞춤형 상담을 비롯해 심리검사 및 해석,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지난 4월 오픈한 뒤 사전 예약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심리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가을패션이 풍성" 쿠팡 이베이코리아 티몬 줄줄이 기획전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을 패션 트렌드를 소개한다.

쿠팡은 패션워크를 7일까지 연다. 테마는 '티셔츠·셔츠'다.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간절기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여성 티셔츠, 여성 셔츠·블라우스, 남성 티셔츠, 남성 셔츠, 유아동 티셔츠, 유아동 셔츠·블라우스로 카테고리별 구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타미할피거와 LAP, 프레드페리, 탑텐 등 브랜드의 간절기 의류 1000여 종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에는 C.에비뉴 상품, 로켓배송 상품, 마켓플레이스 상품이 참여한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에서 6일까지 '트렌드·소호 패션 워크'를 열고 다양한 의류, 잡화를 최대 69% 할인가에 판매한다. 행사에는 리얼코코, 체리빌레, 비이 심플, 다바걸, 난닝구, 사번, 바닐라수, 착한구두 등 500여 곳이 참여했다. 할인 카테고리에는 여성의류, 남성의류, 언더웨어, 신발, 가방 및 잡화, 주얼리 등 6개다. 일반 고객에게 '20%', 멤버십 '스마일클럽' 고객에게는 '22%'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티몬은 13일까지 '가을 트렌드' 기획전을 열고 계절 신상 의류를 선보인다. 가을 트렌드에 맞는 특가 제품을 모았다. 모든 상품에는 무료배송 혜택이 적용된다.

네이버·카카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내겠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에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 구현할 예정이다. 양사는 블록체인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